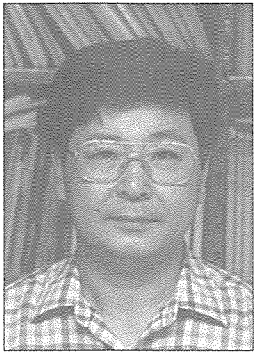


치과의사 수급추계와 치과대학증설

문혁수/서울치대 예방치과학교실 부교수



합리적 보건진료인력 계획과 보건진료인력 정책 요구

보건진료용역의 생산요소인 노동, 실물자본, 중간재 중에서 노동 즉 인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2/3 정도라

고 한다. 그래서 보건진료용역은 노동집약적(labor intensive)인 용역이라고 한다.

그리고 보건진료용역은 다양한 전문인력의 협동과 협조하에 생산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 보건진료인력은 즉석에서 양성해 낼 수 없고 장기간의 양성기간이 필요하며, 독점성이 강할 뿐만 아니라 보건진료인력 자체가 보건진료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특성이 있다.

그리고 보건진료체계 및 진료인력양성 교육의 경직성과 전문기술인력인 보건진료인력의 고유한 특성으로 인하여 보건진료인력을 쉽게 다른 직업인으로 전환시키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전시키기가 어려운 특징이 있다. 그래서 보건진료용역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보건진료인력계획과 보건진료인력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정부, 일관된 구강보건정책 추진해야

특히 구강보건진료용역의 생산에서 노동 즉 인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여타의 보건진료용역 생산에서보다도 더 높고, 구강보건인력 중에서도 치과의사에 대한 의존도가 특히 높은 특징을 갖고 있어서 치과의사인력계획은 여타의 구강보건인력에

비하여 특히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의 치과의사 수급에 관한 연구는 구강진료의 특성이 무시된 채로 의사수급에 관한 연구를 하면서 구색맞추기로 일부 다루어져 온 것이 사실이다.

현재까지 세계적으로 이용된 대표적인 구강보건인력수급 추계법을 DeFRIESE와 BARKER는 인구대 치과의사의 비율을 이용한 추계법과 치과의사의 분주도와 같은 치과의사의 여론조사법 및 치과의사단체에서 새로운 가용 구강진료인력을 수용하기 위한 필요구강진료수요 추정법 그리고 수리경제적 구강진료생산성에 의한 구강진료인력 수급추계법인 미국치과의사협회의 구강보건진료인력계획 정보체계(Dental Planning Information System) 및 구강진료필요에다 구강진료수요로 가중치를 주어 구강진료수요를 파악하여 구강진료인력 수급을 추계하는 가장 이상적인 구강진료인력수급 추계법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인구대 치과의사의 비율을 이용한 추계법은 나라마다 구강병발생량에 차이가 있고 치과의사의 활동도에 차이가 있어서 적절치 못한 방법이다.

치과의사의 분주도와 같은 치과의사의 여론조사법은 우리나라에서도 전국대상이 아닌 지역별로 시도된 적이 있었다.

이 방법은 장래의 치과의사 수급을 추계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고, 조사시점의 치과의사 과잉과 잉여를 판정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래서 뉴질랜드에서는 해마다 개원치과의사의 분주도를 파악하여 치과의사수급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장기계획을 약간씩 수정하는

보건진료용역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보건진료인력계획과
보건진료인력정책이 뒷받침돼야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치과의사단체에서 새로운 가용 구강진료인력을 수용하기 위한 필요 구강진료수요추정법은 구강진료인력수급 추계법이라기 보다는 차라리 구강보건진료의 공급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구강보건진료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개원형태와 방법을 찾아내는 데에 목적이 있는 방법이다.

수리경제적 구강진료생산성에 의한 구강진료인력 수급추계법인 미국치과의사협회의 구강보건진료인력계획 정보체계(Dental Planning Information System)는 미국 23개주에 실용한 방법으로 구강보건진료수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많은 수의 변수를 이용하여 미래의 구강보건진료수요를 추정하여 구강진료인력수요를 추정하는 방법이다. 전국민이 의료를 보장받고 있는 우리나라에는 적합하지 않은 방법이다.

구강진료필요를 조사하여 이 구강진료 필요에 구강진료수요로 가중치를 주어 미래의 구강진료수

로, 현재로서는 가장 권장할 만한 구강진료인력수급 추계법으로 알려져 있으나, 전국민의 구강질환 실태에 관한 믿을 만한 자료의 확보와 미래의 구강병발생 양상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여건 즉, 정부 구강보건정책의 일관된 추진 등이 선행조건이다.

구강보건 특색 고려한 우리나라만의 치과의사 인력수급 연구 필요

이렇게 구강보건 인력수급 추계법이 세계적으로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단 한번도 제대로 구강보건인력 추계가 이루어진 적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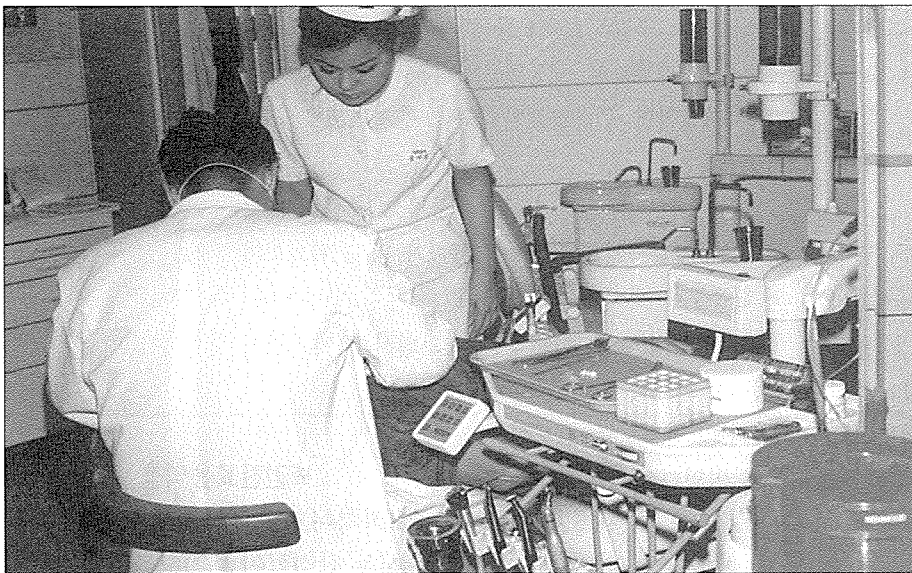
1981년도 한국 생산성 본부에서 행한 치과의사 수급에 관한 연구 역시 세계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구강보건 인력추계법으로 접근되지 못하고, 일반적인 전문인력수요 추계방법으로 이루어져서 방법

론에서는 많은 문제점이 지적될 수 있었지만 치과의사인력수급 추계가 단독으로 깊이 있게 다루어진 최초의 연구인 동시에 마지막 연구였다.

전문인력수급 추계는 추산의 근거가 된 인력공급량이나 전국민의료보험시대의 개막과 같은 수진량에 영향을 주고 있는 요인들이 달라지면, 새로운 차원에서 다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1986년에 한국인구보건연구소가 1987년부터 시작되는 제6차 경제사회개발5개년계획에 반영시키고자 완료한 <보건의료인력 장기수급계획에 관한 연구>에서도 의사, 간호사, 약사만을 다루고 치과의사는 제외하였다. 그리고 1987년 <보건의료인력개발과 수급방안>이라는 연구 보고서에서 단순히 의사대 치과의사

의 비율만을 고려하여 치과대학 정원을 의과대학 정원의 1/3인 900~950명으로 정하여도 무방하다



적절한 치과의사 수급대책을 통해서 국민의 구강보건을 책임질 수 있고 국가의 구강보건정책에 기여해 단순히 숫자를 양산해 내는 것이 능사만은 아니라는 것을 정확히 인식해야 한다.

요를 파악하여 이 미래의 구강보건진료수요를 기초로 하여 구강진료인력수요를 추정하는 방법으

고 검토하면서 정부차원의 보다 정확한 치과의사 수급전망에 대한 정확한 추정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1990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의 장단기 수급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는 치과의사 수요추계모형을 구성하면서 미래의 가정을 중심으로 5가지로 치과의사 수요추계를 하여 결과적으로 치과의사가 모자라기도 하고 과잉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최근 한국개발연구원의 연구방법도 1990년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사용한 추계방법과 유사하였으나, 단지 활동 치과의사수 추정과 구강진료생산성을 다르게 설정한 차이가 있었다.

즉 현재와 같은 정도로 계속 치과의사를 양성해 간다면, 가용치과의사의 수와 구강진료생산성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달라짐으로 해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결과의 중간치인 2010년에 300명의 치과의사가 부족할 것이라는 대안보다 2005년부터 1천여명의 치과의사가 부족할 것이라는 결과를 내놓았다.

이러한 연구결과가 도출된 배경은 직접적인 연관성은 갖고 있지 않지만 우리보다 소득수준이 월등히 높은 최선진국의 치과의사 1인당 담당 인구수가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 결과라 사료된다.

그러나 이러한 선진국의 대다수는 이미 치과의사수가 과잉되어 있어서 일본과 같은 나라는 1989년도에 이미 치과대학 입학정원의 20%를 삭감하였다. 나라마다 구강병 발생량에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구강건강에 대한 신념에도 차이가 있고, 더욱이 구강진료전달체계나 사회보험으로서의 의료보험제도 등도 상이하기 때문에 선진국의 치과의사 1인당 담당인구수를 참고하여서는 안된다. 그러나 1995년 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OECD 가입국의 치과의사인력을 참고하여 우리나라 치과의사 수급에 관한 연구결과를 냈다. 이렇게 구강진료인력 수요예측이 지나치게 범위가 넓어서, 필요에 따라 정부당국자가 자의적으로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

장기적 구강진료인력수급 계획과 시의적절한 분주도 측정으로 과부족 검토해야

본인이 실시한 치과의사 분주도 연구결과에 의하면 현재도 치과의사 중에서 50% 정도만 충분히 활용되고 있을 뿐 50% 정도는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구강보건인력수급은 현재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인력수급을 다루기 때문에 이 연구만으로는 치과대학 증설이나 치과대학생 증원에 대처할 수가 없다.

최선의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추계된 결과를 가지고 정부당국자가 필요에 따

라 치과의사의 과부족을

적용하지 못하게 하고,

치과의사의 과잉공급

으로 국민구강진료비

의 상승을 막기 위해

서는 현재까지 개발된

구강진료인력 수급계

획법 중에서 가장 우

수하다고 인정받고 있는

구강진료필요에다 구강진료

수요로 가중치를 주어 구강진료수요파악법으로 장

기적인 구강진료인력 수급을 계획하는 연구를 실

시하여 장기적으로 치과의사 수요를 예측하는 큰

틀을 잡고, 구강진료생산성이나 구강병예방사업

등이 급변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구강진료인력수가

적절한 지의 여부를 개월 구강진료인력을 대상으

로 분주도를 측정하여, 구강진료인력 과부족도를

검토하여 약간씩 수정하는 체계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저 우리가 느끼기에 또는 현실적으로

현재에도 치과의사수는 과잉되어 있고 미래에는

더욱 과잉될 것이라는 피상적인 주장만을 되풀이

하지 말고, 가장 최선의 치과의사 수요에 대한 추

계결과를 가지고 해마다 반복되는 치대증설과 치

대생 증원에 대처하는 날이 하루 빨리 오기를 기

대한다.

우리가

느끼기에 또는 현실적으로

현재에도 치과의사 수는 과잉되어

있고 미래에는 더욱 과잉될 것이라는

피상적인 주장만을 되풀이하지 말고,

가장 최선의 치과의사 수요에 대한

추계결과를 가지고 해마다 반복되는

치대증설과 치대생 증원에

대처해야